

식스뷰 : T-600

부제 : 썸의 전쟁



[Prologue] 비밀 격납고

1. 격납고의 새로운 장난감

<화면: 메타파일럿 베이스캠프 지하 비밀 격납고. 평소 짙은 기름 냄새와 엔진 굉음이 가득해야 할 이곳이 묘하게 고요하다. 격납고 중앙, 방수포가 씌워진 무언가가 놓여 있다.>

“여러분! 시즌 3까지 무사히 마치고, 다양한 미션과 이벤트 전장(캠페인)에 참여하여 완전한 비행을 즐기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레이 썸이 방수포 앞에 서서 박수를 쳤다. 내 옆에 선 씨걸 교관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스나 152로 처음 창공을 겪고, 시즌 2에서는 프로펠러 전투기의 낭만도 맛봤죠. 그리고 지난 시즌 3... 무려 F-16 펄컨으로 초음속 현대 공중전과 폭격까지 마스터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에서 여러분이 탑승할 기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F-16 다음이면 최신형 스텔스기? 아니면 우주선? 레이 썸이 씩 웃으며 방수포를 확 걷어냈다.

펄럭-!

“.....어?” “.....이게 뭐니까, 쌤?”

방수포 아래에 있던 것은 매끈한 티타늄 합금의 기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최고급 레이싱 체어와 함께, 설 새 없이 붉고 푸른 숫자가 번쩍이는 2개의 모니터가 연결된 컴퓨터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2. 썸의 전장으로 초대

“컴퓨터요? 이제 와서 지상 통제소 사무직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내가 황당하다는 듯 묻자, 레이 쌤이 모니터 전원을 켰다. 무수한 캔들 차트와 호가창의 숫자들이 맹렬하게 점멸하며 격납고를 밝혔다.

“카야 님. 전투 파일럿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종술? 음... 공간 지각 능력? 빠른 반사 신경?”

“그것도 맞지만, 본질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목표와 생존을 위해 내리는 결단력’입니다. 전장의 분위기를 읽고, 레이더에 탐지된 적기의 움직임을 계산해 무장을 발사할지 회피 기동을 할지 결정해야 하죠.”

레이 쌤은 모니터 속에서 설 새 없이 변하는 붉은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곳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전장,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카야 님은 그동안 가상 영공에서 교범을 준수하고 시스템을 통제하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마인드를 이 자본주의 영공에 적용할 때입니다. F-16의 무장 발사 버튼을 누르듯, 당신의 마우스 클릭 한 번에 투자한 자본이 공중 분해되거나 2배로 복제될 겁니다.”

3. 식스뷰 T-600 훈련기에 탑승하라

“그럼 차트와 숫자로 도배된 이 듀얼 모니터가 이번에 탑승할 비행기라는 소리네요?”

씨걸 교관이 모니터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들었다. “그래. 이 기체의 정식 명칭은 ‘식스뷰(Six-View) T-600 훈련기’다. 식스뷰는 애칭이고.”

“식스뷰라면서 왜 모니터는 2개뿐이죠?”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레이 쌤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다.

“식스뷰는 모니터 개수가 아닙니다. 이 험난한 전장을 바라보는 파일럿의 6가지 핵심 관점(View)이죠. 전장(시황), 편대(테마), 목표물(종목), 급유(수급), 무장(비중), 그리고 비상 탈출(손절)까지. 이 6가지 관점이 모두 ‘Clear’ 상태인지 확

인해야만 그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모니터, 즉 ‘글래스 콕핏’에 어떤 계기판을 띄울지는 훈련을 진행하며 차차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럼 T-600은 무슨 뜻이에요? 터미네이터 모델명인가요?”

내가 눈을 깜빡이며 묻자, 레이 썸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T는 Target(표적), Time(시간), 그리고 Training(훈련)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T-600 FCS(사격통제레이더)’가 전장을 스캔하며 가짜 종이비행기들을 거르고 진짜 돈이 물리는 강력한 대장기(Target)를 찾아 표적 채널망으로 락온(Lock-on) 해줄 겁니다. 그럼 당신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Time)에 무기를 운용하는 실전 훈련(Training)을 수행하는 겁니다.”

“오... 그럼 뒤의 600은요?”

“화력입니다. 이번 훈련에 장착할 총 무장(예수금)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베테랑 파일럿은 한 번에 모든 탄약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암람(100만 원)으로 간을 보고, 근접거리에서는 사이드와인더(200만 원)로 추적하고, 눈앞에 확실한 표적이 보일 때 기총(300만 원)으로 숨통을 끊는다! 이 1-2-3 교전 규칙으로 화력을 나누어 철저하게 계산된 사격을 해야 합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총알이 날아오진 않지만, 모니터 너머로 느껴지는 살벌한 속도감과 짙은 돈 냄새가 내 전투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다.

“자, 카야 님. 식스뷰 T-600의 콕핏에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차트라는 계기를 읽고, 호가창이라는 무장 운용 조종간을 쥔 ‘트레이딩 파일럿’입니다.”

엔진 굉음 대신, 서늘한 시스템 부팅음이 비밀 격납고를 열었다. 피 튀기는 자본주의 영공에서의 새로운 교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댓글 창]

@Meta_Rookie: 헐 F-16 다음이 듀얼 모니터 HTS ㅋㅋㅋㅋ 반전 미쳤다.

@SkyHigh99: 솔직히 물리적 중력 9G보다 계좌 -30% 찍힐 때 느껴지는 중력이 더 무섭긴 함 ㅠㅠ 처음 3개월은 1주 2주 3주로 훈련해요.

@Ace_Pilot: T-600 네이밍 폼 미쳤다... Target, Time, Training. 100-200-300 분할 매수. 벌써부터 뇌동매매 치료되는 기분임.

@Seagull_Veteran: 야 카야, 마우스 짹 잡아라. 레이더 락온 떴다고 함부로 몰빵 치다간 힘들게 깎아 만든 러더 페달 값까지 다 날아간다 ㅋㅋㅋ

[Chapter 1] 글래스 캅킷

1. 팝업창 지옥에 빠지다

<화면: 메타파일럿 베이스캠프. 카야가 비장한 표정으로 듀얼 모니터 앞의 의자에 앉는다. 마우스를 왼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T-600 첫 훈련입니다. 레이 쌤이 깔아준 프로그램 HTS(Home Trading System)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딱!”

화면에 로딩 창이 뜨더니, 곧이어 알록달록한 이벤트 팝업과 광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창들이 모니터를 빈틈없이 채웠다.

“쌤! 무슨 창이 이렇게 많이 떠요? 창이 너무 많아서 밖이 안 보이는데요!” 나는 웃으면서 마우스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레이 쌤도 피식 웃으며 내 마우스 위로 손을 겹쳐 잡았다.

“카야 님. 진정하고 불필요한 광고 창은 다 끄세요. 초보 파일럿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전투와 생존에 직결된 중요한 신호는 하나도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2대의 모니터에, 전장 파악과 타격에 필요한 핵심 창들만 배치할 겁니다. 자, 다 켜죠? 텅 빈 1번 모니터부터 계기판을 세팅해 봅시다.”

2. 모니터 #1 (PFD) : 메인 화면과 방아쇠

<화면: 레이 쌤의 지시에 따라 카야가 메뉴를 하나씩 검색해서 빈 화면에 블록을 맞추듯 배치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모니터는 PFD(주 비행 계기판)입니다. 전장의 분위기를 읽고, 탐지된 적기와 직접 교전하기 위한 핵심 화면이죠. 최소한 오늘 날씨가 태풍인지 맑음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출격해야 하겠죠?”

“오케이, 기상 리포터(시황 창) 배치 완료! 그럼 이 계기판은요?”

“그건 주식 종합 차트입니다. 우리와 마주칠 적기들의 고도와 속도를 보여주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적의 ‘대장기’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나는 레이 썸의 설명을 들으며 HTS 계기판을 마우스로 이리저리 옮겨보았다.

“썸, 그러니까 이 모니터 안에서 화력(돈)이 엄청나게 몰리는 대장기를 눈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장기를 찾았다면 우리도 잡아야겠죠? 모니터 오른쪽 끝에는 미사일 방아쇠 역할을 할 ‘호가창’을 배치합니다. 왼쪽은 무장과 연료를 보여주는 ‘계좌 잔고’ 창입니다. 방아쇠는 항상 6가지 관점(식스뷰)이 모두 Clear 상태일 때만 당겨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1번 모니터가 직관적이고 선명한 조종석 HUD(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변했다.

3. 모니터 #2 (TSD) : 윙맨 그리고 T-600 레이더

<화면: 1번 모니터 세팅을 끝낸 카야가 뿌듯한 표정으로 텅 빈 오른쪽 2번 모니터를 가리킨다.>

“썸! 1번 모니터만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번 모니터는 왜 필요한가요? 훈련 중에 유튜브나 틀어놓을까요?”

그때, 뒤에서 믹스 커피를 마시던 씨걸 교관이 내 뒤통수를 톡 쳤다.

“카..야, 넌 전투 혼자 하나? 윙맨(Wingman)이 있어야지. 2번 모니터는 TSD(전술 상황판)이자 위협 경보기(RWR) 역할이다. 1번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내 시야 밖에서 낮고 빠르게 움직이는 적 편대를 볼 수 없거든”

레이 썸이 고개를 끄덕이며 2번 모니터로 마우스를 넘겼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장으로 가는 동안, 먼 거리에서 이륙하는 적기를 2번 모니터에 띄웁니다. 조기경보 창과 시황뉴스 그리고 중요한 통신망인 PC 메시지를 띄워두세요.”

“메신저를 왜요?”

“이 통신망으로 ‘T-600 FCS’ 가 브리핑 보고서를 쏠 겁니다. 시장의 흠먼지를 뚫고 엔진 출력을 높이는 뜨거운 적기를 시스템이 찾아내어 주기적으로 메신저로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2번 모니터에서 탐지된 적을 1번 모니터로 끌고 와서 교전하는 방식이죠.”

“아하! 광역 스캔으로 적을 찾고, 줌 인해서 ‘대장기’인지 식별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카야 님. 식스뷰 T-600의 클래스 각핏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때요, 이제 전장과 우리의 임무가 좀 눈에 들어옵니까?”

나는 2대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질서하던 수많은 팝업창들이, 이제는 기상리포터, 전술상황판, 무장 버튼, 탐지레이더의 계기로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어 내 눈앞에 정렬되어 있었다. 어지럽던 시야가 밝아지고 마음이 시트처럼 편안해졌다. 책상 위의 마우스를 다시 가볍게 쥐었다.

“완벽해요, 레이 쌤. 조종간 그림감 최고입니다. 당장 출격해서 대장기를 격추하고 싶어요!”


[댓글 창]

@Meta_Rookie: 와, 맨날 HTS 창 세팅하다가 지쳤는데... 세팅된 각핏 복사해서 그대로 씬 ㄷㄷ

@Radar_King: T-600 레이더도 궁금하지만 탐지된 적기들을 메신저 알림으로 올리면 교전 준비해야 되나요 ㅋㅋㅋ.

@Seagull_Veteran: 카야, 방아쇠 엉뚱한 데 당기지 마라. 기상리포터와 꼭 친해져야해!

@SkyHigh99: 1번은 교전 계기판(시황/차트/호가), 2번은 워맨 계기판(뉴스/조기경보기/레이더) 메모 완료!! 각핏 세팅만 봐도 전투력 급상승합니다 빨리 썬의 전

장으로 출격하시죠!!! 

[Chapter 2] 우렁찬 엔진 소리

1. 오전 9시, 흑먼지 속의 야생마

<화면: 오전 8시 59분. 메타파일럿 베이스캠프. 카야가 1번 모니터의 방아쇠(호가창 버튼)에 손가락을 올린 채 숨을 죽이고 있다. 시계가 09시 00분을 가리키자, 화면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한다.>

“개장입니다! 와, 화면 전체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번쩍거려요! 눈 돌아갈 것 같아요!” 나는 마우스를 쥔 손을 부들거리며 외쳤다. 수많은 기체(종목)들이 +10%, -5%를 오가며 요동치고 있었다. 마치 수백 대의 전투기가 좁은 협곡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것 같았다.

“당장 쏘고 싶죠, 카야 님?” 뒤에 선 레이 썸이 내 의자 등받이를 짝 잡으며 말했다.

“네! 저기 숫구치는 놈 잡으면 당장 수익 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갈까요?”

“방아쇠에서 손 떼세요. 우리가 찾는 진짜 목표물은 지금 안 보입니다.”

“네? 조기경보기 화면에 상승하는 기체가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시간은 어제 산 사람들과 오늘 새로 사려는 사람들 그리고 파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흑먼지를 일으키는, 야생마 종목들이 날뛰는 시간입니다. 잘못 올라타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수많은 파일럿들이 채프와 플레이어를 마구 뿌려대며 도그파이팅을 하는 구간이죠. 쉽게 말해 죽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작전명과 목표물이 드러나는 시간은 오전 9시 30분 전후입니다. 개싸움이 끝나고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방아쇠를 잠그고 대기하십시오.”

2. 거래량(RPM)의 함정과 진짜 추진력(거래대금)

<화면: 오전 9시 35분. 미친 듯한 요동이 조금 잦아들 무렵, 카야의 1번 모니터 차트에 엄청난 속도로 고도를 높이는 기체가 포착된다.>

“썸! 9시 반 지났어요! 저기 보세요, 완벽한 타겟입니다!” 나는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흥분했다.

“거래량(Trading Volume) 터지는 거 보이세요? 무려 천만 주나 거래됐어요! 엔진 RPM이 터질 듯이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대장기 아닙니까? 락온

(Lock-on) 할게요!”

하지만 레이 썸은 모니터의 숫자 하나를 중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카야 님. 식스뷰 점검 제대로 안 하실 겁니까? 주식 수량인 ‘거래량’을 보라고 했
나요, 아니면 투입된 돈의 크기인 ‘거래대금(Trading Value)’을 보라고 했나요?”

나는 멍칫했다. “어... 거래량 천만 주면 엄청 많이 사고판 거잖아요?”

그때 빈 종이컵을 구기며 씨겔 교관이 끼어들었다. “루키. 1000원짜리 100번 사
고판 거랑, 10만 원짜리 한 번 사고판 건 결국 같은 10만 원이야. 깡통 기체가
엔진이 요란하게 돈다고 진짜 돈이 물리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레이 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엔진 RPM)은 눈속
임이 쉽습니다. 꺾데기만 요란한 종이비행기죠. 하지만 큰손들이 공중 급유로 수
백,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거래대금’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체를
성층권까지 밀어 올리는 진짜 추력(애프터버너)입니다. 앞으로 거래량 창은 아예
꺼버리세요. 우리는 오직 ‘당일 거래대금 상위’ 레이더만 봅니다.”

3. 나 홀로 비행인가, 거대한 편대 비행인가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거래량 모드를 다시 클릭해서, 레이 썸이 알려준 ‘거래대
금 상위’ 리스트로 다시 정렬했다.

“아... 진짜네요. 아까 제가 보던 종목은 연료(돈)가 충분하지 않은 텅 빈 깡통이
였어요. 오, 썸! 방금, 거래대금 30억 원이 터진 진짜 목직한 전폭기를 찾았습니
다! 이건 어때요?”

“일단, 추력은 합격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 기체가 혼자 날아갑니까,
아니면 편대 비행(Formation)을 하고 있습니까?”

“편대 비행이요?”

“대장기는 절대 혼자 비행하지 않습니다. 같은 테마, 같은 업종으로 묶인 동료 윙
맨들을 이끌고 다 같이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갑니다. 방금 2번 모니터의 T-600

FCS로 수신된 표적들을 확인해 보세요. 엔진 열기를 뺐으며 상승 중에 있네요. 오늘의 작전명을 알고 있나요?”

나는 빠르게 2번 모니터에서 표적들의 종목 뉴스를 검색했다. “아! AI 반도체 관련 강력한 수주 뉴스가 떴네요! 그래서 2등기, 3등기들도 다 같이 고도 5% 이상 치고 올라오며 편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레이 쌤이 처음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거래대금이라는 뜨거운 애프터버너를 켜고, 워맨(편대) 종목들을 이끌며 고도를 높이는 기체. 그놈이 바로 오늘의 진짜 대장기, ‘적토마’입니다. 조준경에 올려주세요.”

띠덕-!

나는 1번 모니터의 허드(HUD) 창에 거대한 대장기를 넣고 락온(Lock-on)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각퓷에 실린 무장 600만 원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댓글 창]

@Meta_Rookie: 와... 9시 개장하자마자 눈 뒤집혀서 아무거나 샀다가 -10% 처

맞은 내 얘기네 ㅠㅠ 9시 30분 관망 메모...



@Radar_King: 거래량(Volume)이랑 거래대금(Value) 차이 설명 진짜 미쳤다. 1000원짜리 100번 거래 비유에서 무릎 탁 치고 갑니다.

@SkyHigh99: 카야 종이비행기에 또 폴베팅 할 뻔했죠? ㅋㅋㅋㅋ 레이 쌤 없었으면 오늘 9시 1분에 계좌 터졌음. @Trading_Ace: 편대 비행(테마) 확인하는 거 꿀팁이네요. 혼자 튀는 독고다이 잡주 타다가 벼락 맞은 적 한두 번이 아님.

@Seagull_Veteran: 카야, 대장기 찾았다고 방아쇠 잘못 당기면 끝이다. 교전 수칙 무조건 숙지해야함.

[Chapter 3] T-600 전술

1. 물빵의 탐욕과 추락

<화면: 1번 모니터(PFD)의 HUD 조준경 창에 대장기, 윙맨1, 윙맨2를 순서대로 배치하고 편대 차트 움직임을 주시하는 카야. 마우스를 고쳐 잡고 호가창을 보며 입술을 깨문다.>

“대장기 락온(Lock-on) 완료! 쌤, 이놈 맞죠? 지금 막 이전 고도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나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내 계좌 잔고 창에는 이번 훈련을 위해 준비한 600만 원이 장전되어 있었다.

“좋아, 무기 허가 모드 ON, 최대 화력으로! 600만 원 전탄 발사!”

내가 호가창 매수 버튼을 향해 마우스를 클릭하려는 찰나, 뒤에서 보고 있던 씨겔 교관이 내 손등을 찰싹 때렸다.

“앗! 왜 때려요!”

“메타파일럿 맞냐? 넌 적기만 보이면 가진 무기를 한 번에 다 쏘냐? 저놈이 회피기동(급락)하면 어떡할 건데? 남은 총알도 한 발 없이 뒤흔래?”

나는 억울한 표정으로 레이 쌤을 돌아보았다. 레이 쌤은 씨겔 교관의 말에 동의한 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씨겔 교관 말이 맞습니다. 거리가 멀고 타겟의 의도가 불분명할 때 전 재산을 한 번에 쏘는 ‘물빵 타격’은 파일럿의 가장 치명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탐진 파일럿은 철저하게 화력을 통제합니다. 훈련에서는 1-2-3 교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2. 거리 측정과 3단 무장 해제

<화면: 레이 썸이 1번 모니터의 차트 위로 마우스를 옮겨, 대장기인 적토마가 오르고 내리는 그래프를 가리킨다.>

“전투에서 ‘거리’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로 발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저 적토마는 너무 높이 솟구쳐 있습니다. 거리가 멀단 뜻이죠.”

레이 썸의 지시에 따라 나는 무장 선택 창을 열었다. “자, 1단계. 가장 거리가 멀 때 쏘는 장거리 미사일, ‘암람(AMRAAM)’ 100만 원만 먼저 장전하세요. 저놈이 진짜로 계속 올라갈 놈인지 간을 보는 정찰 타격입니다. 발사!”

투둥둥-! 100만 원어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쏘자마자 끝없이 오를 것 같던 기체가 고도를 낮추며 혹 떨어지기 시작했다.

“헉! 썸! 떨어져요! 몰빵했으면 벌써 손실이 엄청났을 거예요!”

“거 봐, 내 말 맞지?” 씨겔 교관이 킬킬거렸다.

“당황하지 마세요. 적기가 숨을 고르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도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고, T-600 레이더를 보니 아직 엔진이 펄펄 끓고 공중 급유기도 들어왔습니다. 승률이 높아졌습니다. 2단계,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200만 원 발사!”

투둥둥-! 2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나의 평균 교전 단가(손익 가격)가 혹 낮아지며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3. 근접 도그파이트와 비상 탈출(Eject)

“그런데 만약 적기가 여기서 안전 고도마저 뚫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어떡하죠?” 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최종 방어선이자 마지노선입니다. 적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근접전(Dogfight) 상황이죠. 이곳마저 뚫리면 우리도 추락합니다. 가장 확실한 자리이므로 남은 최대 화력, ‘발칸 기총’ 300만 원을 시원하게 쏟아부어 손익단가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그럼 600만 무장을 다 썼는데도, 높이가 상승하지 못하고 방어선 아래로 완전히 추락해 버리면요?”

레이 썸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때는 주저 없이 ‘사출 레버(Ejection Handle)’를 당겨 비상 탈출(손절) 해야 합니다. 카야님의 비행기는 잃겠지만, 카야님은 살아서 기지로 돌아가야 다시 이 전장에 올 수 있으니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손절을 망설이는 파일럿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나는 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노려보았다. 다행히 적토마(대장기)는 나의 사이드와인더(2차 매수)를 맞고 1차 안전 고도 위로 기수를 들어 올리며 다시 엄청난 속도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온통 붉은색 수익금으로 번쩍거렸다.

“적기 격추 성공! 타겟이 목표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전리품 챙겨서 RTB(Return to Base, 귀환) 하겠습니다!”

나는 미련 없이 전량 매도 버튼을 누르며 의자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내 생애 첫 완벽한 전술 타격이었다.

[댓글 창]

@Meta_Rookie: 와, 맨날 적기 수직상승 할 때 전탄 발사했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1-2-3 분할로 안전한 전투를 해야겠네요.

@Radar_King: 암람(100) -> 사이드와인더(200) -> 기총(300). 무기 체계로 설명하니까 비중 조절이 한방에 이해됨 ㅋㅋㅋ

@SkyHigh99: 사출 레버 이야기에서 숙연해집니다... 저번 주에 탈출 못 하고 같이 추락한 제 계좌에 묵념을 ㅠㅠ @Trading_Ace: 타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균 단가 낮추는 전술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게 파일럿이지!

@Seagull_Veteran: 루키, 오늘 운이 좋았다. 다음엔 안전 고도 뚫고 지하로 꽂히는 놈들 만날 텐데, 손절 못 하면 트레이딩 파일럿 수수료증은 물 건너간다.

[Chapter 4] 이젝션과 블랙박스

1. 풀로드(Full Load) 상태의 공포

<화면: 적기와 교전 후 무사히 전술적 이탈(Breakaway)에 성공하고 가슴을 쓸어 내리던 카야. 방금 전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에 씨겔 교관이 남긴 글을 읽고 표정이 굳어진다.>

“어... 쌤. 댓글 보셨어요? 아까 제가 평단가를 낮추려고 마지막 300만 원(기총)을 투입했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표적이 위로 안 돌아가고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면... 이럴때도 무조건 손절하고 비상탈출 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 쌤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3단계 타격을 위해 마지막 화력을 모두 쏟아부었다면, 카야 님의 T-600 훈련기는 장착한 탄약을 모두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손실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표적이 추락할 때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 빠르게 하락할 때도 있지만 하루종일 수평비행하며 천천히 내려갈 때도 있죠.”

“허억...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식스뷰 체크리스트를 거치고 편대를 구성한 대장기라도, 전장에선 100%란 없습니다. 시장의 큰손들이 갑자기 변심해서 폭탄(물량)을 던지면, 아무리 튼튼한 기체도 날개가 꺾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추락하는 기체에서 파일럿의 목숨을 구하는 최후의 수단, ‘이젝션 시트(Ejection Seat, 비상 탈출 좌석)’입니다.”

2. 생존을 위한 기계적 손절 (-4.4% 룰)

<화면: 레이 쌤이 1번 모니터 화면의 메뉴 창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클릭했다. [주식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새로운 HTS 창이 뜬다.>

“카야 님. 기체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면 파일럿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올라가겠지’라며 고장 난 마음을 붙잡고 기도만 하죠. 그러다 결국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공중 분해됩니다. 그래서 비상 탈출은 인간의 흔들리는 의지가 아니라, 냉정한 ‘기계’에 맡겨야 합니다.”

“기계예요? 이 자동 감시 주문 창이 알아서 절 탈출시켜 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300만 원을 투입해서 평단가를 바닥 근처로 확 낮춰놨습니다. 그런데도 반등하지 못하고 내 손익 대비 -4.4% 이상 더 추락한다? 그건 이미 대장기가 아니라 엔진이 완전히 박살 난 고철 덩어리입니다. 미련 없이 사출 레버를 당겨야 합니다.”

레이 썸이 내 손을 이끌어 조건 설정 칸에 숫자를 입력하게 했다.

“자, 손실 제한 기준에 -4.4%를 입력하세요. 매수하자마자 이 시스템을 켜두는 겁니다. 만약 놈의 고도가 내 평단가의 -4.4% 까지 내려오는 순간, HTS 가 카야 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량 시장가로 내다 팔며 당신을 각퓔 밖으로 튕겨낼 겁니다.”

3. 비행이 끝난 후: 블랙박스(매매일지) 분석

“-4.4%... 뭔가 뼈아프지만, -20% 맞고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단 낫겠네요.” 나는 마른침을 삼키며 [조건 만족 시 자동 매도] 버튼을 활성화했다.

구석에서 즐고 있던 씨겔 교관이 다가오며 노트를 한 권 던져주었다.

“살아 돌아왔으면 비행 기록을 까봐야지. 블랙박스(Blackbox) 분석이다, 루키.”

“블랙박스요? 주식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가 왜 추락했는지 복기하는 ‘매매일지’다. 오늘 시장 날씨는 어땠는지, 작전명은 확인했는지, 식스뷰에서 내가 뭘 놓쳤는지, 그놈이 진짜 대장기가 맞았는지, 아니면 거래량만 터진 종이비행기였는지 기록하는 거다. 이 블랙박스를 뜯어보고 성장하지 않는 파일럿은, 다음 전투에서 똑같은 이유로 또 당한다.”

레이 썸이 모니터를 끄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가짜 기체를 거르는 식스뷰 각퓔, 정확한 진입을 위한 타겟 락온, 600만 톤약을 통제하는 1-2-3 사격, 그리고 목숨을 지키는 자동 감시 이젝션 시스템까지. 축하합니다, 카야 님. 이제 당신은 완벽한 T-600 훈련기를 마스터한 진정한 ‘트레

이딩 파일럿'입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꺼지고, 격납고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었다. 내일 아침 9시, 다시 열릴 자본주의 영공을 정복할 준비가 끝났다.


[댓글 창]

@Meta_Rookie: 와... 자동 감시 주문 기능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다. 맨날 미련 때문에 손절 못 하다가 강제 장기투자 했는데 당장 세팅함 ㅠ

@SkyHigh99: -4.4% 기계적 손절. 말은 쉽지만 진짜 내 생돈 날아가는 거라 버튼 누르기 힘든데, 이걸 이젝션 시트라고 생각하니까 마인드 세팅이 확 달라지네요.

@Radar_King: 매매일지를 블랙박스라고 부르니까 진짜 간지 난다 ㅋㅋㅋ 오늘 격추당한 시점을 자동매매차트 보며 당장 블랙박스 분석 들어갑니다.

@Seagull_Veteran: 야 카야, 오늘 훈련 끝났다고 놀지 말고 내일 나타날 적 대장기 후보들 미리 골라봐라.

@Trading_Ace: 메타파일럿 정주행 완료! 트레이딩을 이렇게 재밋고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다니... 훈련 영상 기다려줍니다!! 

[Epilogue] 감정을 지운 파일럿

1. 오전 8시 50분, 출격 전야의 고요

<화면: 새로운 아침. 메타파일럿 베이스캠프 지하 격납고. 듀얼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카야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어제의 허둥지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분하게 계기판을 점검하는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기까지 하다.>

“시장 분위기 기상리포터로 점검. 간밤에 나스닥 지수 양호,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는 것 확인. 오늘의 영공은 맑음. 이륙 허가(Go) 조건 충족.”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1번 모니터 왼쪽의 시장 상황 창을 훑어봤다.

“RWR(조기 경보기) 점검 완료. 전일 거래대금 1,000억 이상 대장기 후보군 3개, 레이더 추적망에 장입.”

2번 모니터의 레이더의 감도를 조절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온 레이 쌤과 씨걸 교관이었다.

“카야 님. 오늘따라 조종복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긴장됩니까?”

레이 쌤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커피를 받아 들었다.

“아니요. 어제까진 이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제 심장 박동수를 귀락퍼락하는 요물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통제해야 할 데이터 값으로 보입니다.”

씨걸 교관이 휘파람을 불었다.

“우후~ 우리 졸보 루키가 한달 만에 웬일이래? 뇌동매매 하다가 강제 이젝션 당할 뻔한 사람 맞냐?”

“교관님, 비행기 조종간 잡을 때 감정 섞으시나요? 100만 원으로 락온하고, 200만 원으로 쏘고, 기수가 꺾이면 300만 원으로 단가 낮춰서 이탈한다. 안 되면 -4.4%에서 자동 탈출한다. 전 그냥 식스뷰 T-600 훈련 매뉴얼대로 기계처럼 버튼만 누를 겁니다.”

2. 9시 정각, 철창 없는 전장의 문이 열리다

“훌륭합니다.”

레이 쌤이 내 어깨를 짚으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식 시장은 희망, 탐욕, 공포라는 인간의 나약한 감정을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피 같은 자본은 공중 분해됩니다. 파일럿은 변덕스러운 차트를 볼 때 자신의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식스뷰와 시스템’만을 참고해야 합니다. 카야 님은 이제 도박꾼의 티를 벗고 진짜 트레이딩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띠링-!

<화면: 정각 9시 00분을 알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2대의 모니터가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한다. 수많은 기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창공으로 솟구쳐 오른다.>

“개장시작했다! 와, 저기 관심종목 벌써 15% 쏘는데?! 지금 따라붙어?!”

씨걸 교관이 짐짓 흥분한 척 소리치며 나를 떠보았다. 하지만 나는 마우스에서 손을 뗀 채, 팔짱을 꼈다.

“안 속아요, 교관님. 지금은 흙먼지 날리는 난투극 시간입니다. 9시 30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저놈이 거대한 거래대금과 편대를 동반한 진짜 대장기인지 식별될 때까지 하루종일이라도 방아쇠엔 손도 안 댈 겁니다.”

“하하하! 레이, 네가 루키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워놨네!”

격납고에 씨걸 교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레이 썸도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9시 30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가라앉고, 진정한 타겟이 레이더에 모습을 드러낼 시간. 내 잔고에는 완벽히 통제된 600만 원의 화력이 충전되어 있었다.

나의 각뿔, 식스뷰 T-600의 레이더망에 드디어 거대한 폭격기 하나가 포착되었다.

“타겟 락온. 교전을 시작합니다.”

[댓글 창]

@Meta_Rookie: 와... 카야 성장 속도 무엇? 어제 종이비행기에 폴베팅하던데 이제 팔짱 끼고 오후 3시까지 기다린대 ㄸㄸ 놀랍다.

@SkyHigh99: “감정을 지운 기계”. 트레이딩 파일럿에게 이보다 최고의 극찬이 있을까. 나도 오늘부터 기도 매매 접고 시스템 매매 해보자. 난 100만원으로 20, 30, 50만원 무장운용 ㅎㅎ

@Seagull_Veteran: 야 카야, 멋진 척하더니 손에 땀 때문에 마우스가 번들거린다

야 ㅋㅋㅋ 수료 축하한다!

@Trading_Ace: 이번 훈련은 진짜 짚었다... 썬의 전장을 비행 전술로 이렇게 풀다니. 씨겔 교관님, 레이 쌤, 카야 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Part 2 실전 교

전편 숨참고 기다립니다 홉!! 